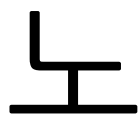


Governance Opinion

< 재벌의 공익법인 활용기 >



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어로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와 권력, 명성을 가진 자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사회를 통해 부와 권력, 명성을 얻은 자들이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부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단과 같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원에 대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독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재벌들에게 부의 환원은 불편한 이야기인 경우가 있다. 반면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 장치는 놓쳐서는 안 되는 꿀팁이다.

공익법인 활용기 1

가장 흔하게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공익법인을 통해 승계 및 상속 과정의 절세를 꾀하는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0분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가업 승계 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을 활용해 공익법인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법인이 겉으로 내세우는 이미지는 한없이 착하기만 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장학 사업, 다양한 문화 진흥 사업 등 공익법인들이 제 역할을 다하기만 한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밝아질 것만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활동상을 조금 더 꼼꼼히 뜯어보면 공익법인은 절세 장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있다.

하이트진로그룹 일가가 설립한 하이트문화재단은 2007년 설립되었다. 하이트문화재단이 밝힌 고유목적 사업의 내용은 미술, 문학, 음악 등 문화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여 학술, 교육, 환경, 언론사업을 통해 공익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6년 하이트문화재단이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2천 4백만원에 불과하다. 그나

마도 직접 사업 수행이 아니라 예술문화기부금 2천 4백만원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에 기부한 것이다. 반면 2016년 하이트문화재단은 급여로 9천 7백만원, 업무추진비 1천 5백만원, 회계 및 법률 자문 등 수수료 3천 2백만원, 도서 구입 및 인쇄비 등으로 2천 9백만원 등 기부금을 포함해 총 3억 8천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2016년 하이트문화재단은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등을 더해 총 4억원 가량을 수입을 올렸다.

2015년도 역시 유사하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에 2천 4백만원을 기부한 것이 고유목적 사업의 전부이다. 이자수익과 배당금 수익 등 총 8억 4천만원의 수익을 거뒀지만 대부분 급여, 도서 등 구입비, 지급수수료로 지출되었다.

2천 4백만원 기부를 고유목적 사업으로 할거라면 굳이 공익법인을 별도로 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힌트는 하이트문화재단이 설립된 2007년에 있다. 하이트문화재단은 2007년 7월 10일 설립되었다. 그리고 하이트진로그룹의 고 박경복 명예회장은 2007년 7월 25일 사망하였다. 하이트문화재단은 2008년 1월 고 박경복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당시 하이트맥주 보통주 635,559주를 전부 증여받았다. 당시 기준으로 약 3%에 해당했다. 앞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고 박경복 명예회장이 하이트문화재단이 증여한 하이트맥주 주식 3%는 5%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된다. 이후 하이트문화재단은 하이트진로그룹이 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 등의 과정을 거치며 보유 지분의 형태가 변화하였다. 2016년 말 기준으로 하이트문화재단은 하이트진로홀딩스 우선주 10,042주와 보통주 1,749,610주, 그리고 하이트진로 우선주 24,106주를 보유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하이트문화재단은 총 자산은 약 983억원에 달하는 데 그 중 923억원이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금융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이트문화재단은 1천억원에 가까운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배당 등을 통해 수억원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 지출에는 상당히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유목적 사업인 문화 발전과 진흥보다 보유하고 있는 하이트진로그룹 주식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강하다.

[하이트문화재단 활동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총 자산	98,278,468	98,247,287	97,750,666
수익	405,825	842,602	671,942
지출	381,908	346,645	397,874
고유목적사업 지출	24,000	24,000	42,000

하이트문화재단은 공익보다 사익을 더 우선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공익재단이라는 간판을 달고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아낌없이 누릴 수 있었다.

※ 본 보고서에 대해 하이트문화재단의 반박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본 보고서 마지막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활용기 2

사조그룹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익법인을 활용했다. 사조그룹의 정점에는 사조시스템즈가 있고 사조시스템즈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사조산업의 지분을 보유하며 사조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2017년 사조산업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관계기업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국사료의 주식 4,500주를 푸른문화재단에 기부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에도 유사했다. 2016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부국사료 주식 4,500주를 푸른문화재단에 기부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2년에 걸쳐 약 9천주의 주식을 푸른문화재단에 기부한 것이다.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사조산업은 부국사료 주식 67,500주(37.5%)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이다.

푸른문화재단은 2016년 4월 설립되었으며, 젊은 문화 예술인재의 양성 및 지원, 문화 예술단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조그룹은 갓 신설된 신생 공익재단에 2년에 걸쳐 9,000주의 부국사료 주식을 기부한 것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푸른문화재단의 총 자산은 약 23.6억원이며 그 중 15억원이 사조산업이 기부한 부국사료 주식이다. 재단 자산의 상당 부분이 사조산업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사조그룹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통상 기부의 주체가 직접 재단의 대표자를 맡거나 이사를 맡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푸른문화재단의 대표자는 구혜원이다. 푸른문화재단의 대표자인 구혜원은 코스닥 상장기업 푸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중 한 명이다. 구혜원 대표이사의 남편인 고 주진규 푸른그룹 회장은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의 동생이다.

사조산업은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설립을 주도한 신설 공익법인에 수십억원의 주식을 기부하며 설립을 지원한 것이다.

비상장사인 부국사료는 배합사료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약 1,231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은 약 681억원 수준이다. 부국사료의 총 발행주식이 18만주임을 고려해 볼 때, 주당 자산가치는 약 37~38만원 수준이며, 사조산업이 푸른문화재단에 기부한 9천주는 약 34억원 규모에 달한다. 그리고 부국사료의 연매출은 약

600억원대 수준이며 20~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부국사료는 푸른저축은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일원이기도 하다.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부국사료는 푸른저축은행 지분 9.6%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혜원 등과 함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어 지분 공시를 하고 있다.

이들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사조산업은 부국사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국사료는 다시 푸른저축은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사조산업과 푸른저축은행은 오너 간의 친인척 관계에 있다. 하지만 푸른저축은행과 사조산업은 하나의 그룹으로 엮이지는 않는다. 사조산업에서 부국사료 지분이 사라지면 사조그룹과 푸른저축은행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정리되는 셈이다. 그리고 푸른저축은행의 구혜원 대표이사가 주도하고 있는 푸른문화재단으로 사조산업의 부국사료 지분이 매년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사조산업이 부국사료 주식을 기부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소 특이한 점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다. 사조산업의 공시에 따르면 사조산업이 처음 부국사료 주식을 푸른문화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2016년 2월 25일로 추정된다. 그 날 사조산업 이사회는 보유주식 기부(출연)의 건을 논의하고 결의했기 때문이다. 물론 부국사료 주식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016년 한 해 동안 사조산업이 주식을 기부한 것은 부국사료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푸른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은 2016년 4월 6일이다. 그렇다면 사조산업이 아직 설립도 되지 않은 재단에 십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덜컥 기부하기로 결정한 셈이 된다.

게다가 사조산업은 기부에 익숙한 기업도 아니다. 2013년 사조산업의 기부금은 1천만원에 불과했으며, 2014년에는 3천 3백만원을 기부했다. 그러던 사조산업의 기부금 규모는 2015년 급격하게 증가한다. 2015년 사조산업은 약 8억 8천만원의 기부금을 지출했다. 그런데 2015년 9월까지의 기부금은 2억 2천만원이었다. 2015년 4분기에 급격하게 기부금을 늘린 것이다. 그리고 2016년 2월 부국사료 주식 기부가 결정된 것이다. 2016년 사조산업의 기부 총액은 약 16억 4천만원이다. 2017년에는 17억 3천만원이다. 부국사료 주식을 연속하여 기부하면서 기부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모습이다. 갑작스런 사조산업의 통큰 기부의 속뜻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사조산업은 두 해 연속 십억원 이상의 통큰 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짧은 홍보 기사 하나 내놓지 않았다. 기부에 대해 과도한 생색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조산업은 주식회사이고 많은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이다. 사조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 역시 주주 모두의 소유물인 셈이다. 그렇다면 조금 낮간지러울지 몰라도 사조산업은 통큰 기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칭찬받는 게 낫지 않았을까?

물론 이러한 지배구조의 관점과는 무관하게 사조산업이 꾸준히 기부활동을 넓혀나가고 푸른문화재단 또한 본래의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해서 공익법인의 역할을 다한다면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설립 첫해인 2016년 푸른문화재단은 고유목적사업에 2백만원을 지출했다.

공익법인 활용기 3

동국제강 그룹은 또 다른 방식으로 공익법인을 기업 경영에 이용했다. 유가증권 상장기업인 부산주공의 경영 과정에서 공익법인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부산주공의 실질적인 경영은 장세훈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장세훈 대표이사의 부친인 고 장상철 동국제강 전 사장은 장경호 동국제강 창업주의 4남이다. 부산주공의 경영권을 장세훈 대표이사가 확보하는데 맹활약을 한 것은 세연문화재단이었다.

세연문화재단은 장세훈 대표이사의 부친인 고 장상철 동국제강 전 사장의 후손들이 고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하였으며 박물관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1년 설립되었으며 2016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은 약 281억원 수준이다. 장세훈 대표이사의 누나인 장인경 씨가 세연문화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2009년 세연문화재단은 세연아이엠과 함께 부산주공의 지분과 경영권을 매입하였다. 약 110억원이 투입되었다. 세연문화재단과 함께 부산주공 경영권을 취득한 세연아이엠은 장세훈 대표이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로 부산주공 경영권 취득 직전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세연아이엠은 부산주공 지분 취득 자금을 세연문화재단으로부터 차입해 사용하였다. 즉, 부산주공 지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금 전액이 세연문화재단에서 부담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세훈의 세연아이엠은 세연문화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는 등 세연문화재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세연아이엠의 2016년 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세연아이엠은 세연문화재단으로부터 57억 5천만원을 차입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말 기준으로 세연아이엠의 자본 총계는 -88.4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황이다. 총 자산은 85억원인데 단기차입금만 158.8억원에 이른다. 외부감사인 역시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감사보고서를 통해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장세훈 대표이사가 세연문화재단을 활용해 취득한 부산주공의 실적은 영 신통치 못하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부산주공은 약 55억원의 영업손실과 88.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리고 2017

년에도 약 19.7억원의 영업손실과 77.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부산주공 측은 공시를 통해 밝혔다.

적자에 허덕이는 와중에 2018년 3월 부산주공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자금 수혈이었다. 부산주공에 50억원을 지원해 준 주체는 재단법인 중도였다.

재단법인 중도는 2008년 설립되었으며 한국 고유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유·불교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자선사업을 통해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은 499억원 수준이다. 재단의 대표자는 장혜원 대표이다.

부산주공은 재단법인 중도를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재단법인 중도와의 관계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재단법인이라고 언급했다. 재단법인 중도의 대표자인 장혜원 대표는 동국산업 장상건 회장의 자녀로 추정된다. 동국산업 장상건 회장과 장세훈 대표이사의 부친인 고 장상철 동국제강 전 사장은 형제 관계이며 장세훈 대표이사와 장혜원 대표는 사촌 관계가 된다. 참고로 재단법인 중도는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동국산업 지분 3.83%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일원이며, 장혜원 대표는 동국산업의 등기임원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세연문화재단이나 재단법인 중도는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재단 자산의 상당 부분이 동국제강 3세가 경영하고 있는 부산주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결국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재단에 지원된 각종 혜택 역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공익을 위한 공익법인

법과 제도를 통해 공익법인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 전체적인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익법인에 제공된 혜택은 결국 사회 전체의 양보와 지원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일부 공익법인의 활동은 진정 공익을 위한 법인인지 의문을 가지게 하기도 한다. 물론 공익법인들의 활동을 단순히 지출 금액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작지만 조금씩이라도 공익적인 활동을 넓혀나가고자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 일부 공익법인들의 활동이 미진하다고 해서 공익법인 전체를 매도해서도 안 될 것이며 재벌과 기업들의 공익활동이 위축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기업의 이익은 사회를 통해 조성되었으며, 재벌은 이를 통해 부를 축적했다. 그리고 재벌은 축적된 부

의 일부를 공익법인 형태로 그 모양을 바꾸었다. 하지만 단순히 공익법인의 모양을 가졌다고 해서 공익을 실천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법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좀 더 아름다워지길 기대해 본다.

※ 본 보고서에 대해 하이트문화재단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이트문화재단의 반박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2007년 평소 문화 예술 분야에 관심은 많았던 하이트진로그룹 회장 일가의 사회적 기여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설립 당시 기부된 주식의 배당금 및 이자수익은 문화예술 사업 및 기부활동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 조세통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단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및 통상적인 일반관리비는 재단의 직접목적사업 비용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재단의 재무제표상 사업비는 모두 직접목적사업비용이라 할 수 있음
- 인건비는 전시 기획 및 전시장을 운영하는 큐레이터 2명의 인건비. 업무추진비(접대비)는 전시 준비과정 전후에서 작가들과 미팅과 식사 등의 비용. 지급수수료는 외부감사인 보수와 작품 관리 및 전시작품 액자 등의 제작비. 도서인쇄비는 전시회를 개최한 작사들의 도록

이러한 하이트문화재단의 반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6년과 2015년 하이트문화재단의 사업비용 세부내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당사가 하이트문화재단이 고유목적 사업지출로 24,000,000원을 지출했다고 기재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재단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지역, 수혜인원, 사업내용, 사업비)를 적습니다.

1	사업명	예술문화기부금	사업비	24,000,000 원
사업실적	기부금 24,000,000			
2	사업명		사업비	원
사업실적				
3	사업명		사업비	원
사업실적				
4	그 외 사업	개	사업비	원
합계	총 목적사업	1 개	사업비 합계	24,000,000 원

[출처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5.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2016 년)]

[하이트문화재단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 : 원)]

구분			2016년	2015년
수입	사업수입	기부금, 보조금 등	0	0
	사업외수입	이자수익	28,074,762	24,786,901
		배당금수익	377,743,800	817,656,800
		잡이익	6,000	158,000
	합계		405,824,562	842,601,701
비용	사업비용	직원급여	68,569,520	70,109,704
		상여금	18,100,520	17,896,700
		갑급	10,665,600	7,870,500
		퇴직급여	7,085,603	4,823,319
		복리후생비	12,425,528	11,421,873
		여비교통비	6,679,191	5,522,798
		접대비(업무추진비)	15,420,260	10,755,980
		통신비	1,695,438	2,228,702
		세금과공과금	191,740	89,500
		감가상각비	2,742,575	3,318,031
		보험료	3,300,689	2,376,160
		운반비	31,326,710	17,880,000
		도서인쇄비	29,371,806	23,781,833
		소모품비	17,187,150	31,853,810
		지급수수료	31,939,550	48,212,350
		광고선전비	1,980,000	220,000
		잡비	5,640,000	3,009,400
		송금수수료	453,622	315,200
		자문비용	2,500,000	0
		전시조성비	26,675,000	15,936,200
		제증명발급수수료	18,000	20,000
		교육사업비	0	1,700,000
		전시지원비	37,500,000	38,500,000
		원고료 등	15,441,200	4,802,800
		소계	346,909,702	322,644,860
	사업외비용	기부금	24,000,000	24,000,000
		목적사업지급준비금전입액	23,916,217	495,956,841
		전기오류수정손실	10,998,643	0
		소계	58,914,860	519,956,841
	합계		405,824,562	842,601,701